

발 간 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족하여 '아태무형유산센터'를 거쳐, 마침내 2011년 7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국제정보네트워크센터(약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로서 정식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그리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중점 기능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창립기념 국제회의 보고서는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국제회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형유산 보호의 지역 협력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소지역별 특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논의를 이끈 발표자와 토론자의 글을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센터의 창립을 위해 지원해 준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회의를 위해 원고를 집필하고 수고해주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 삼 열